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Matthew 16:24)

2012. 3

Manna 'of Choonghyun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열왕기상 · 히브리서 · 야고보서 · 베드로전서
구역예배 · 대학청년부 GBS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Matthew 16:24)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

● Contents

8 매일성경묵상 히브리서 9장 ~ 히브리서 11장

14 1과 누가 주의 만찬에 나와야 하는가?

22 매일성경묵상 히브리서 12장 ~ 야고보서 4장

30 2과 돼지 우리 안에서 점검하는 시간

38 매일성경묵상 야고보서 5장 ~ 베드로전서 5장

46 3과 탕자의 아버지

54 매일성경묵상 열왕기상 1장 ~ 열왕기상 6장

62 4과 지옥에서

70 매일성경묵상 열왕기상 7장 ~ 열왕기상 12장

『증언의 만나』는

가정예배 · 구역예배 · 대학청년부 GBS를 돕기 위해 증언교회가 매일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3

March 2012

주 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4	5 히브리서 12장	6 히브리서 13장	7 아고보서 1장
11	12 아고보서 5장	13 베드로전서 1장	14 베드로전서 2장
18	19 열왕기상 1장	20 열왕기상 2장	21 열왕기상 3장
25	26 열왕기상 7장	27 열왕기상 8장	28 열왕기상 9장

April

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1 히브리서 9장

2 히브리서 10장

3 히브리서 11장

8 야고보서 2장

9 야고보서 3장

10 야고보서 4장

15 베드로전서 3장

16 베드로전서 4장

17 베드로전서 5장

22 열왕기상 4장

23 열왕기상 5장

24 열왕기상 6장

29 열왕기상 10장

30 열왕기상 11장

31 열왕기상 12장

교회 주요일정

2월 22일 ~ 4월 7일

사순절

3월 4일

제2차 성찬식

나의 주요일정

- 1 사순절기(2.22~4.7)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 2 충현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 3 김성관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정결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소서.
- 4 충현교회에 주신 5대 목표가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짊어지는데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 5 십자가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 6 모든 교구와 부서, 각 위원회가 십자가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복음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 7 1년 1인 1명 전도하며, 교회 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 8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 9 충현교회의 재단들(유지, 동산, 복지)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현재 진행 중인 양로원 및 함양충현농원 개발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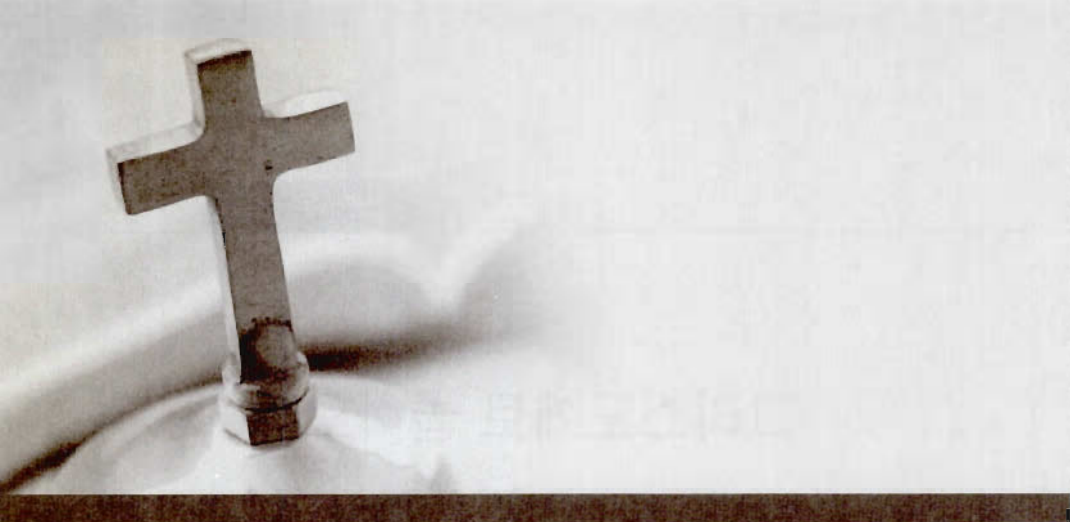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는 두 명입니다.
집을 떠난 탕자, 집 안에 있던 탕자.
우리는 어느 편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매 순간 회개하며,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은총만이 죄인들로 하여금
주의 만찬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은총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세상의 넓고 편한 길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십시오.
십자가를 붙들며,
좁고 험한 믿음의 길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2012년 3월을 맞이하여 위임목사 김성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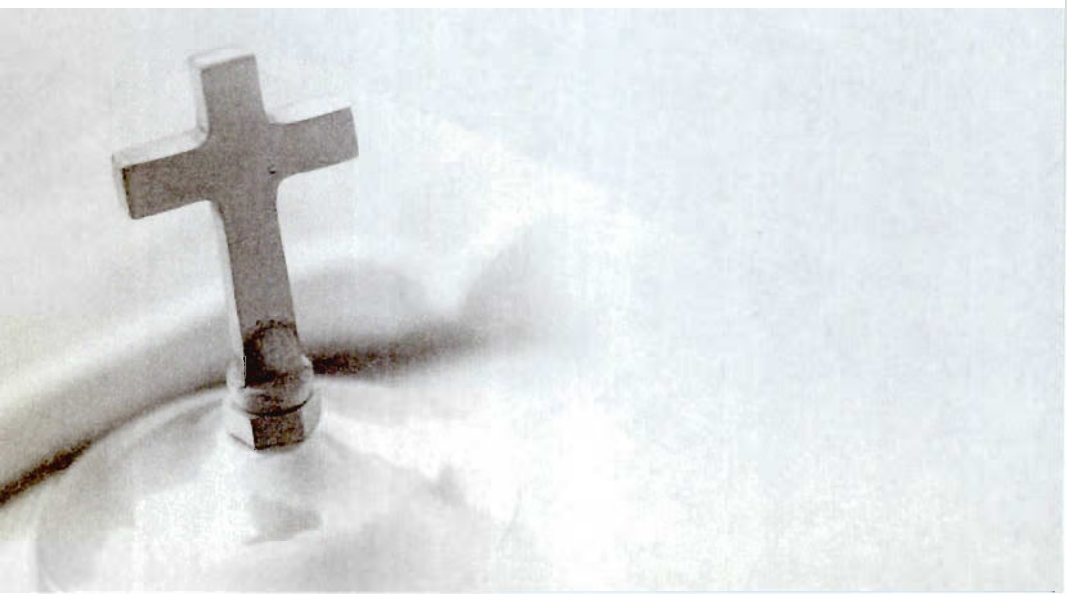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15)

매일성경묵상

가정예배 · 구역예배 · 대학청년부 GBS

HOLY



피 흘리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자신의 피로 제사를 드리심으로 단번에 영원하고도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죄 제사를 다시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11~12절).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로 죽은 행실에서 떠나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습니다(14절).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의지하고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용납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그들을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 놓으신 생명의 길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24절).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영원한 기업인 하나님 나라를 얻도록 하셨습니다(15절).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하신 일입니다.

처음 언약에 속한 모든 예법과 성소에서 섬기는 일들은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 예수이신 것을 알려 줍니다. 그리스도가 온전한 제물로 성소에 들어가신 후 첫 언약은 폐지되었습니다. 피를 흘리는 것은 언약의 비준인 동시에 언약을 어기는 자는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으로서 언약의 견고성을 나타냅니다(22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언약을 완성하셨으며 구속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친 백성이 되었습니다(딤후 2:14).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구속받은 성도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는 것은 피 흘리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 은혜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 9:22)

In fact, the law requires that nearly everything be cleansed with blood, and without the shedding of blood there is no forgiveness. (Heb. 9:22)

히브리서 9장

찬송가 259장

목/창/노/트

· **세상 끝(26절)** : 여기서 말하는 '세상 끝'은 시간적인 끝이 아니라 완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에 구약시대의 절정이었으며 신약시대의 시작이 되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기도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은혜임을 더 깊이 느끼게 하소서. ② 사순절기(222~4,7)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더 낮고 영구한 산업

히브리서 10장
찬송가 435장

목/상/노/트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영원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신의 몸을 완전한 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는 '거룩함'을 입었습니다(10절). 과거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원하고도 완전한 제사는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었습니다. 완전한 인성과 신성을 지니신 그리스도는 흠없는 제물로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19절)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죄를 자복하여 공회하심을 힘입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22절).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를 잘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이들의 결말은 멸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하늘에 둡니다. 모욕과 핍박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으며 비웃음거리가 되어도, 심지어는 재산을 빼앗기며 목숨까지 위협받는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인내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입니다(36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37절)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위해 모욕과 핍박을 당하고 조롱과 멸시를 받음을 기뻐하는 삶을 이루기 원합니다.

• 서서 섬기(11절): 서 있는 자세는 일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 있는 제사장은 죄를 결코 제거해버릴 수 없는 제사를 반복해서 드려야 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드린 희생으로 죄를 영원히 제거해버리셨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히 10:14)

because by one sacrifice he has made perfect forever those who are being made holy. (Heb. 10:14)

기도제목

① 교회를 향한 믿음의 핍박 가운데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고 복음만을 붙들게 하소서. ② 예루살렘 찬양대와 오케스트라(눅 2:36)를 통하여 금요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기도노트

믿음, 하나님의 선물

3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이며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깨닫게 해 주며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신뢰하게 합니다(17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그분께서 약속하신 미래를 위하여 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비록 하나님께 순종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그분을 붙들고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 나라를 소망하는 나그네의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13~16절).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그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믿음의 본을 보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신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택하신 자를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봅니다. 이에 우리는 믿고 순종할 뿐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나 방법과 이유와 목적과 결과를 하나님이 친히 가르쳐주실 것을 믿고 순종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이 신앙과 함께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1절부터 이어지는 믿음의 모습, 믿음의 고백, 믿음의 인내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극한 역경 가운데서도 두려움으로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찬송가 542장

독/상/노/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히 11:1)

Now faith is being sure of what we hope for and certain of what we do not see. (Heb. 11:1)

• **약속(9, 11, 13, 39절)** :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약속들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땅에 대한 약속으로 시작되어 메시아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영적 유산과 관계된 약속들이 되어 갔다.

기도제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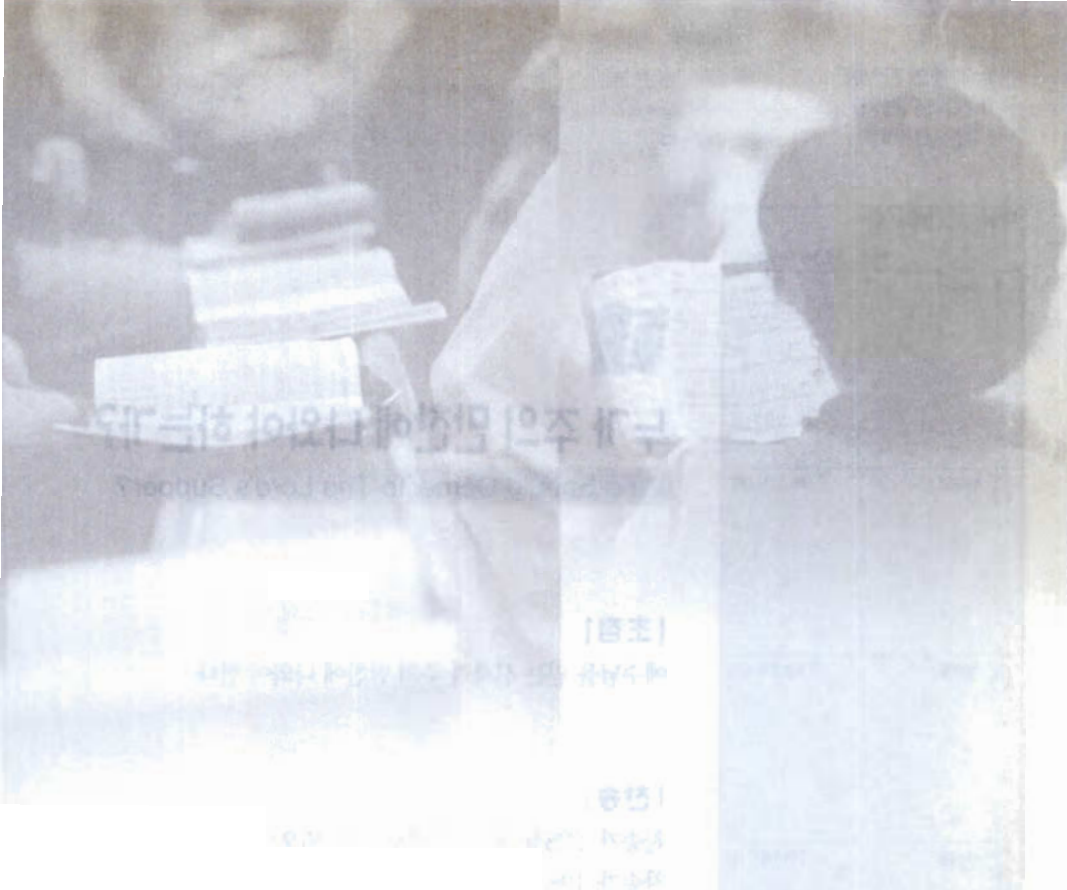
① 극한 역경 가운데서도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고 복음에 순종하는 믿음의 인내를 허락하소서. ② 김성관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정결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소서.

기도노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순절

재의 수요일로 시작되는 사순절은 인류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당하신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기 위하여 부활절(4.8) 전, 40일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기간입니다(히 12:1).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 유월절 전에 금식을 행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성장과 회개를 통한 영적 준비라는 차원에서 구약의 유월절 만찬을 새롭게 해석하여, 주님께 서 제공하신 성찬식을 지키기 전에 금식을 행했습니다. 이처럼 교회 역사 가운데서 시대에 따라 여러 모양으로 이 절기를 지키다가 AD 325년 니케아 회



의에서 40일로 결정되었습니다. '40' 이란 숫자는 시내 산에서 모세의 40일간의 금식, 이스라엘의 40년간의 광야 생활,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으심, 예수의 부활에서 승천까지의 40일 등과 같이 훈련과 준비의 기간을 상징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번 사순절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요 3:3)이라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는 훈련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주력과 구 중심으로 진행되는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에 적극 참석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순절이 되기 바랍니다(막 1:35).

누가 주의 만찬에 나와야 하는가?

고린도전서 10:17

왜지 우리 안에서 점검하는 시간

누가복음 15:11~19

탕자의 아버지

누가복음 15:18~32

지옥에서

누가복음 16:19~31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4 주일

1

누가 주의 만찬에 나와야 하는가?

Who Should Come To The Lord's Supper?

| 초점 |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주의 만찬에 나와야 한다

| 찬송 |

찬송가 228장 오 나의 주님 친히 뵈오니

찬송가 198장 주 예수 해변서

| 본문 | 고린도전서 10:17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5 월요일

☐ 히브리서 12장

6 화요일

☐ 히브리서 13장

7 수요일

☐ 야고보서 1장

8 목요일

☐ 야고보서 2장

9 금요일

☐ 야고보서 3장

10 토요일

☐ 야고보서 4장

주의 식탁은 다른 사람들이 아닌, 주의 자녀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많은 교회들이 이 기본 진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전 11:24)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만찬은 불신자들이 아닌, 주 안에 거하는 신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고전 11:25 _____

※ 주의 만찬이 나에게 주는 은혜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주의 만찬에 참여한다면, 이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은 회개나 의롭다함을 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주의 만찬이 죽은 영혼들이 아닌 산 영혼들을 위한 시간임은 명백한 진리입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오직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와야 한다

오직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주의 만찬에 나와야 합니다. 영적인 잔치를 누릴 우리에게는 영적인 식욕이 있어야만 합니다.

※ 우리 교회의 성찬식과 다른 교회의 성찬식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명령이 육적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은 죽은 사람의 입에 떡과 포도주를 넣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고전 11:26 /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_____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초대교회를 살펴볼 때, 그들은 매일 성찬식을 행했습니다. 성찬식은 몇 차례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찬식을 정기적으로 행하라'는 주님의 명령이 있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의 만찬에 항상 참여해야 합니다.

행 2:46 _____

주의 식탁을 보호하는 것은 중요하다

주의 식탁을 보호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하는 명백한 진리는 오직 신자들만이 주의 만찬의 떡과 잔을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전 11:27~28 /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_____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_____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
는 _____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어떤 교회들은 오직 세례교인들에게만 성찬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어떤 교회들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허용하기도 하며, 또 다른 교회들은 신청서를 쓴 뒤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세례를 받은 사람만 주의 만찬에 참여하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방식이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교회가 주의 만찬을 귀하게 여기는 노력을 계속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 주의 만찬의 순수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나누어 보십시오.

주의 만찬을 귀히 여기고 보호해야 한다

왜 우리는 주의 만찬을 귀히 여겨 보호해야 합니까? 신자와 불신자가 함께 주의 만찬을 대한다면, 성만찬이란 단어가 가진 의미는 없어집니다.

※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지 나누어 보십시오.

신자와 불신자가 함께 주의 만찬에 참석한다면 육체적으로는 함께 하더라도 영적으로는 함께 하지 못합니다. 교제는 우정을 나누는 것 이상입니다. 불신자들과 사귀며 함께 한다고 해도 그것이 참된 교제는 아닌 것입니다.

※ 참된 교제가 무엇인지 나누어 보십시오.

고전 1:9

우리가 진지하게 주의 만찬을 대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성만찬에 참여하는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을 확실히 행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쏟아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이 행동과 신념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로 하여금 스스로가 하나님께 용납 받을 만한 자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그에 대한 친절이 아닙니다.

요 4:23~24

고후 3:17

오늘 성경 본문은 한 떡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육신적이며 영적인 한 몸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한 떡에 참여하기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과 교제를 의미합니다. 오직 참된 신자들만이 믿음과 순종으로 나와야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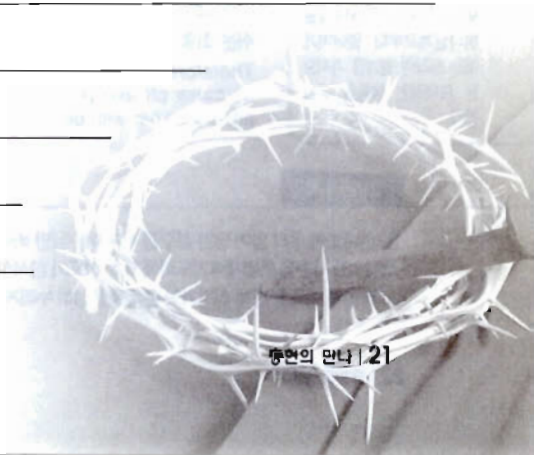
고전 10:17 _____

마 26:26~28 _____

| 믿음의 기도 |

- ① 매 순간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참 신자가 되게 하소서.
- ② 주의 만찬의 참된 의미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참여하게 하소서.
- ③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소서.





신앙의 경주

히브리서 12장

찬송가 354장

목/상/노/트

성경은 신앙생활을 경주에 비유하여 말씀(고전 9:24)합니다. 여기서 경주하는 사람은 항상 목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목표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2절).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목적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라는 목표가 분명할 때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깊은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고난을 기쁘게 참고 인내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요일 5:4). 진정한 신앙의 승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사랑하는 자들을 채찍질하십니다. 이런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은총으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오히려 성숙한 믿음과 성결한 삶을 위한 격려와 축복입니다(8절). 그러므로 징계를 통하여 나를 유익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신을 돌아보아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께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총의 길을 열어 놓으신 부르심 앞에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 **쓴 뿌리(15절)** : 신명기 29:17~18에서 사용된 단어로 여기서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쓰린 결과를 가져오는 도덕적인 행동을 묘사한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히 12:1)

Therefore, since we are surrounded by such a great cloud of witnesses, let us throw off everything that hinders and the sin that so easily entangles, and let us run with perseverance the race marked out for us.(Heb. 12:1)

기도제목

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②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가 참석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기도노트

주를 위한 연합

6

성도의 생활 지침으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1절)는 권면과 정결의 유지(4절)와 지족(5절),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줌(16절), 영적 지도자의 믿음을 본받음(7절)과 순종과 복종(17절)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8절)는 말씀은 뒤이어 나오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9절)는 말씀과 대비되어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부인하고 옛 언약을 고집하는 율법주의적 유대주의의 가르침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다움을 확신있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12절)는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이루어졌음(요 19:17)을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도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던 그리스도와 함께 기꺼이 율법의 상징인 유대교 밖에 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은총을 찬미하는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15절)입니다.

양의 큰 목자이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이끌어 내신(20절) 하나님의 비밀을 아십니까? 23절에는 디모데가 박해 가운데 있음을 말씀합니다. 이러한 환난과 박해 가운데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21절)는 고백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환난과 박해 가운데 예수님을 위한 사랑의 연합이 주님의 교회를 견고히 세워나가게 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히 13:16)

And do not forget to do good and to share with others, for with such sacrifices God is pleased. (Heb. 13:16)

기도제목

① 환난과 박해 가운데 예수님을 위한 사랑의 연합이 우리 교회 안에 있게 하소서. ② 충현교회에 주신 5대 목표가 모든 성도들 이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기도노트

히브리서 13장

찬송가 359장

목/상/노/트

• 제단, 장막에서 섬기는 자 (10절) : 제단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장막에서 섬기는 자란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을 신뢰하지 않고 유대교에서 행하는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믿음의 시련

야고보서 1장
찬송가 210장

목/상/노/트

문안 인사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결합하여 하나님과 예수를 동격의 위치에 놓은 것은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던 이단에 대해서 예수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며 믿음의 시련(2~3절)에 대한 말로 야고보서를 열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스테반의 순교 이후 박해를 피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시련 가운데 있을지라도 더욱 감사하며 기뻐할 것을 말합니다. 당시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는 시련의 목적과 의미, 그리고 그 결과를 말하고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하며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입니다(17절).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18절; 요 1:13). 이 귀한 선물을 우리는 거저 받았습시다. 이 생명의 복을을 전하기 위한 핍박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의를 위한 핍박이 없이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갈보리로 가셨으며, 우리에게도 그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이 있어도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며 우리가 살아 있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 골려 미혹됨(14절) : 낚싯대에 걸린 미끼로 물고기를 유인해내는 모습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이다. 욕심이 사람을 어떻게 그 바라는 것으로 유인해가며 결국 그 미끼에 걸려들게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이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약 1:18)

He chose to give us birth through the word of truth, that we might be a kind of firstfruits of all he created. (Jas. 1:18)

기도제목

① 믿음의 시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② 십자가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기도노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목요일

8

야고보서 2장
찬송가 216장

목/상/노/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 16:16).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1절). 이 믿음은 위로부터 받아서 믿는 믿음입니다. 본문을 기록한 저자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한 집에서 살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미쳤다(막 3:21)고 할 때 그 무리 중에 함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고전 15:7) 후 야고보는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은 야고보에게 있어서 십자가를 지고 순교하는 믿음이며,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려 믿음으로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은 믿음이며(21~23절),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은 믿음입니다(25절). 믿음은 행위의 순종을 요구하고, 또한 그 믿음은 행위의 순종의 결과로 낳은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십자가는 점점 커지고 우리는 점점 작아지게 합니다. 영원을 앞에 놓고 우리의 삶과 죽음을 앞에 놓고 말씀을 기다리며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절대적인 항복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실천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있기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약 2:1)

My brothers, as believers in our glorious Lord Jesus Christ, don't show favoritism.(Jas. 2:1)

• **자유의 율법(12절)** : 요한복음 8:32~36에서 예수님은 복음을 자유케 하는 진리와 말씀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를 발견하고 정려에 있을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 믿음은 미움과 자기연민을 벗어버리는 자유를 가져다 주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게 한다.

기도제목

① 십자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점점 작아지게 하소서. ② 모든 교구와 부서, 각 위원회가 십자가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복음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기도노트

9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

야고보서 3장

찬송가 512장

목/상/노/트

사람이 말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큰 복 중의 하나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어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 언어도 함께 타락하여 발이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말은 거듭나야 합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을 때 이사야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뵈게 되었다고 두려워 합니다. 그때 천사가 부절가락으로 제단에서 숯불을 취하여 이사야에게 날아와 이사야의 입에 대며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고 말합니다(사 6:5~7).

그럼에도 우리는 모이면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보다 교회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이야기를 즐겨합니다. 이는 아직도 자기가 살아 있는 교만함 때문입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10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는 복음이며 복음보다 더 아름다운 말은 없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우리의 입술을 복음 전하는 복된 입술, 회개하는 입술로 삼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총을 증거하기 바랍니다.

• **독한(14절)** :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의 의견을 앞세우려는 사람들의 의지를 드러내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야고보가 사용한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한 단어이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니(약 3:9)

With the tongue we praise our Lord and Father, and with it we curse men, who have been made in God's likeness. (Jas. 3:9)

기도제목

기도노트

① 판단하고 비판하기보다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게 하소서. ② 1년 1인 1명 전도하며, 교회 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10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8절).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바로 주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의지나 노력과 수고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돌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엡 2:16).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며(7절), 주 앞에서 낮추어야 하며(10절), 서로 비방하지 말며(11절), 이웃을 판단하지 말며(12절), 선을 행하여야(17절)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믿음을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정결케 된 자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참 기쁨은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즐거움이며,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갈 6:14)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준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죄인들이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약 4:8)

Come near to God and he will come near to you. Wash your hands, you sinners, and purify your hearts, you double-minded. (Jas. 4:8)

야고보서 4장

찬송가 439장

목/상/노/트

• **손을 깨끗이 하라(8절)** : 종교적인 의식을 묘사하는 표현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출 30:19~21), 우리는 모든 악한 행동을 버리고 타협으로부터 손을 떼므로 우리의 손을 깨끗게 할 수 있다.

기도제목

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해 준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증거하게 하소서. ②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울 보가 되었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어 가슴 벅찬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딸, 은혜예요. 순간순간마다 저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그 감사함으로, 또 주님을 잊고 지낸 그동안의 저로 인해 가슴 아프셨을 주님 생각에 죄송함으로, 말씀을 볼 때, 들을 때, 찬양할 때, 저는 매 순간마다 눈물이 넘치는 울보가 되었습니다. 달혀 있는 제 마음 문 앞에서 쉼 없이 문을 두드리며 "난 항상 네 곁에 있어. 그리고 변함없이 너를 사랑한다"라고 외치셨을 주님, 저를 떠나지 않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문 두드려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즐거운 주님과의 교제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인도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해요. "내 모든 것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 나아가 내 모든 것이 되시는 분. 오직 한 분, 주님이십니다"라고 다시 고백할 수 있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고,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마음을 회복한 요즘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기다려지고, 그 기다림으로 인해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하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저에게 있어,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 될 테니까요.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던 저를 향한 주님의 사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지라”(창 28:15). 저를 참 많이도 울게 하고 웃게 한 이 말씀을,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붙들고 살겠습니다.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박은혜(청년1부)

누가 주의 만찬에
나와야 하는가?

고린도전서 10:17

돼지 우리 안에서
점검하는 시간

누가복음 15:11~19

탕자의 아버지

누가복음 15:18~32

지옥에서

누가복음 16:19~31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11 주일

2

돼지 우리 안에서 점검하는 시간

Taking Inventory In a Swine Pen

| 초점 |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여 속히 회개해야 한다

| 찬송 |

찬송가 387장 멀리 멀리 갔더니

찬송가 527장 어서 돌아오오

| 본문 | 누가복음 15:11~19

¹¹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¹²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¹³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뒤흔다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¹⁴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굶주린지라 ¹⁵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¹⁶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¹⁷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¹⁸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들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¹⁹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12 월요일

☐ 아고보서 5장

13 화요일

☐ 베드로전서 1장

14 수요일

☐ 베드로전서 2장

15 목요일

☐ 베드로전서 3장

16 금요일

☐ 베드로전서 4장

17 토요일

☐ 베드로전서 5장

기업들은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자신의 사업을 검토하고 재고 목록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들이 사업을 분석하는 시간을 갖지 않는 경우 조만간 그 사업은 곤경에 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탕자는 자신에게 남은 것을 헤아려 보았고, 모든 것을 계산했을 때 엄청난 손해를 입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을 2:12

돼지 우리 안에서 자신을 점검해 본 탕자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왜 그런 손해를 입었으며, 그런 그가 무엇을 하였는지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상기시켜 줍니다.

재산만을 생각했다

둘째 아들은 하나님 대신에 오직 재산만을 생각하는 실수를 했습니다.

눅 15:11~12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이 받을 유산을 요구했고, 아버지는 그에게 그것을 기꺼이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나 형을 위해 무엇이 가장 좋은지 생각하지 않았고, 오직 자신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재산을 원했습니다. 잠시 동안 둘째 아들의 재산은 다른 어떤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없는 모든 것은 헛되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얼마 되지 않아 둘째 아들은 마치 속로몬이 발견한 것처럼, 재물이 무익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 2:1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부자 관리는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눅 18:22~25). 부자 관리는 많은 재물을 소유하였지만 천국을 소유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늘의 아버지께 “지금, 나는 나의 몫을 원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만을 생각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의 미래 대신에 오직 육신만을 생각했습니다.

눅 15:13~15

불쌍한 둘째 아들은 방탕한 생활로 재물을 허비했습니다. 그는 완전한 자유를 원했기에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많은 문제들이 집을 떠날 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우리 또한 얼마나 자주 새 환경이 상황을 호전시킬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진리는 형편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영원히 빛납니다.

단 12:3

둘째 아들은 진실로 육신의 것만을 갈구했습니다. 육신의 욕구는 성취감을 주지만, 이는 너무나 죄스럽고 위험합니다.

엡 2:3

엡 5:6~8

마침내 현실을 직시하였다

둘째 아들은 헛된 행복에서 벗어나 마침내 현실을 직시하였습니다.

눅 15:17

열악한 처지에서 어떤 이들은 자신의 상황을 외면하였겠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고통 중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들 한배를 탔겠거니”라는 변명으로 넘겨버리지만, 이 젊은이는 진리에 응답하여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진실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눅 15:18~20

둘째 아들은 회개하고, 앞으로 나아갈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는 자존심을 내려놓았고 일어나서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자신의 자유와 향락을 추구하고, 돈과 성공, 명예만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집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현실만을 생각합니까?

※ 현재 나의 관심과 초점은 어디에 있는지 나누어 보십시오.

돼지 우리 안에서 둘째 아들이 고통당하는 장면은 매우 슬프지만, 그의 후회는 회개로 이어졌고 그를 바꾸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상황에 대해 살펴보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진정으로 진리를 대한다면, 여러분은 일어나 주님께 가서 용서를 구하며 새롭게 되기를 소원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오는 모든 사람에게는 용서하심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여 속히 회개해야 합니다.

렘 3:22 _____

벧후 3:9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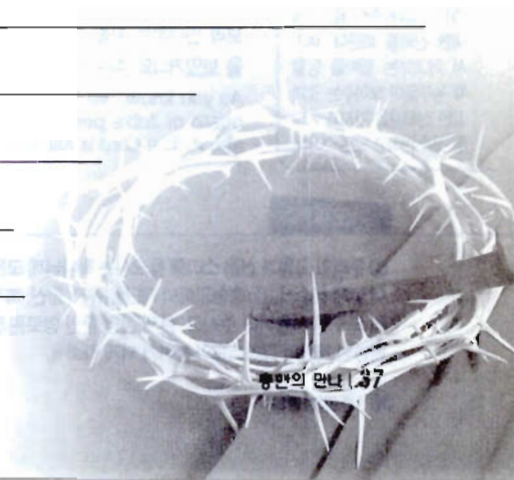
| 믿음의 기도 |

- ① 세상의 것만을 따랐던 악한 모습을 진심으로 회개하게 하소서.
- ②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매 순간 십자가를 붙들게 하소서.
- ③ 보혈의 은총으로 풍성한 사순절이 되게 하소서.





A series of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extend across most of the page width, leaving a small margin on the right side.



들으시는 하나님

야고보서 5장

찬송가 539장

목/상/노/트

• 이른 비와 늦은 비(7절) : 이른 비는 주로 10월에 내리며 파종하게 될 땅을 부드럽게 적셔주는 비이며, 늦은 비는 일반적으로 4월~5월에 내려 곡식이 자라 추수할 수 있게 해 주는 비이다. 농부는 이를 통해 추수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에 대한 신뢰를 배운다. 여기서 야고보는 밭박을 당할 때 농부들이 보여주는 것과 같은 신뢰감을 가지고 기다릴 것을 권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시편에는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으매 주께서 우리를 고통에서 건지셨다는 말씀이 수없이 반복됩니다(시 30편, 107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4절).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자의 소리, 억울한 울음 소리, 눌린 자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들어 주시는 것에 대해 간증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민 20:16).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며 언약에 따라 은혜를 베푸시고, 그 언약을 충실히 지키셨습니다. 언약은 ‘자르다’ 또는 ‘먹는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언약을 세울 때 희생 동물을 잘라 두 줄로 두고 그 사이를 언약자가 지나가는 데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언약은 파기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은 새 언약에서 완성됩니다. 이 새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 때 “너희를 위한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권념하셨습니다. 권념이란 ‘알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은 백성들의 신음 소리를 이미 깊이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신음을 아시고 고통하는 백성들을 품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니니 너희가 옴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약 5:11)

As you know, we consider blessed those who have persevered. You have heard of Job's perseverance and have seen what the Lord finally brought about. The Lord is full of compassion and mercy. (Jas. 5:11)

기도제목

① 우리의 고통과 신음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놓게 하소서. ② 천천교회의 재단들(유지, 동산, 복지)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현재 진행 중인 양로원 및 함양총현농원 개발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보배로운 피

13

시련과 환란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참된 소망과 위로를 주기 위한 베드로의 서신은 각처에 흩어진 성도들을 나그네와(1절)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2절)라 칭하는 문안 인사로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성도란 세상에 영원히 거하지 않는 나그네이며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고 말합니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19절)고 말하며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으며(21절), 순종함으로 영혼의 구원받음(9절)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이루어진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입니다(2절).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도말할 뿐 아니라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통하여 구원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화로운 유업을 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시험은 시련을 견뎌내는 믿음이 되며 시련을 통하여 정결케 되고, 연단하게 되며, 더욱 견고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한다(7절)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의 거듭남은 하나님의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23절) 된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듭남이 ‘말씀’, 즉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고 이것이 곧 ‘복음’이며, ‘복음’이 곧 ‘말씀’(25절)이라고 선언하며 1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신실하셔서 이 말씀을 지키십니다. 이 말씀이 십자가임을 고백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벧전 1:19)

but with the precious blood of Christ, a lamb without blemish or defect.(1Pet. 1:19)

베드로전서 1장

찬송가 261장

목/상/노/트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13절) : 이 시대 사람들은 목적지를 향해 빨리 걷거나 달리기를 할 때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 먼저 길고 험거운 걸음을 모아 끈으로 동여야 했다. 이 표현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위해 일할 때 그 어떤 것도 그것을 방해하지 않게 하라는 것, 즉 훈련된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다.

기도제목

- ① 우리의 구원이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임을 깨닫게 하소서.
- ② 사순절기(22-47)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보배로운 모퉁잇돌

베드로전서 2장

찬송가 144장

묵/상/노/트

우리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5절). 이는 우리의 믿는 모습으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며 거룩한 나라이며 이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입니다(9절). 우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입니다(24절). 예수님은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으셨지만 친히 나무에 달려 고난을 받으사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며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습니다(21절).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온갖 고난을 받으시고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양손과 양발에는 못이 박혔습니다. 옆구리는 창에 찔렸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뺨을 때렸습니다. 얼굴에 침도 뱉었습니다. 그리고 욕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너무나 치욕스러운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수님의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함이요, 예수님의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수치요 고통이었습니다. 사람에게 버린 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돌은 믿는 자들에게는 보배이나 말쑥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며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합니다.

• 자유가 있으냐(16절) : 자유를 얻은 우리는 자유로우나, 역설적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언제나 책임을 조건으로 한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행할 수 있는 자유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을 하는 자유를 의미한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벧전 2:24)

He himself bore our sins in his body on the tree, so that we might die to sins and live for righteousness; by his wounds you have been healed.(1Pet. 2:24)

기도제목

기도노트

① 보배로운 모퉁잇돌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증인이 되게 하소서. ② 충현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소망을 위하여 고난 받음

성도가 가정에서 힘을 윤리와 의무에 대하여 말하고 있으며, 성도 간에 지체임을 깨달아 동정, 사랑, 불쌍히 여김, 겸손할 것 등에 대하여 권고합니다. 이어 베드로는 '의의 고난'에 대하여 상기시키면서(17~22절) 성도가 선을 행할지라도 고난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께서도 세상으로부터 핍박당하셨기 때문이며 이는 상급이 보장된 고난임을 말합니다. 우리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14절). 이 말씀은 실제로 우리의 삶에도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고난을 받았던 간증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며, 인생의 시련과 시험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대"(17절)라는 말씀은 경이로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 인기와 명예와 자기 의를 찾으려 합니다. 십자가를 애써 외면하듯, 복음을 위하여 고난 받음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우리는 의를 위하여 고난 받음은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15절).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벧전 3:22)

who has gone into heaven and is at God's right hand--with angels, authorities and powers in submission to him.(1Pet. 3:22)

기도제목

① 고난 받음이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임을 믿으며 선을 행하게 하소서. ② 김성관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여 주시고, 오직 복음만 전하는 정결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소서.

기도노트

베드로전서 3장

찬송가 149장

목/상/노/트

• 선한 양생(16절) : 우리가 범하는 잘못들이 우리를 따라잡을 것을 두려워하여 뒤를 돌아보며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

베드로전서 4장

찬송가 336장

목/상/노/트

고난 가운데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성도들에게 때가 악할수록 더욱 근신하여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살아갈 것을 촉구합니다(1~11절). 그리고 지금까지 언급한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며 결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쁨으로 참여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12~19절).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당하게 되는 핍박과 치욕 등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자신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그리스도와 세상 사이에 엄격한 경계선을 두지 않고 자신을 세속에 적당히 순응시키는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박해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 믿음을 가지고 쫓아가는 자들만이 고난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주와 함께 왕 노릇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얻게 되는 즐거움은 이 세상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십시오(13절).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고난을 받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위탁하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이 영광의 자리에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기 원합니다.

• **불 시험(12절)** : 불타는 고
통스러운 시련을 의미한다.
이 표현은 제련하는 불 또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
시험 과정을 묘사하는데 고
난의 불은 하나님이 신자들의
삶을 정결하게 하고 굳
건하게 하시기 위해 계획하
신 것으로 그분의 목적을
이루는 데 기여한다.

오하여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
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벧전 4:13)

But rejoice that you participate in the sufferings of Christ, so that you may
be overjoyed when his glory is revealed. (1Pet. 4:13)

기도제목

① 고난 가운데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게 하소서. ② 총천교회에 주신 5대 목표가 모
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짊어지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기도노트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

17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1절)이라 자칭하는 베드로는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던 자였습니다. 그는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실패한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 가라”(마 16:23)고 명하신 사람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빈 무덤에 달려갔지만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요 21:3)며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베드로를 먼저 만나 주시기 위하여 물고기를 잡으러 간 바닷가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요 21:15~17)고 명하셨습니다. 이러한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는 담대한 고백을 하며,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아라”(9절)고 권면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우리가 당한 고난을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신다(10절)고 확신하며 권면합니다.

베드로서신의 전체를 다루는 문제는 핍박과 고난 가운데 소망을 주는 격려이며 이러한 고난에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도 실패자입니다. 우리는 고난 당함을 두려워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핑계를 댑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은 만나 주시며 ‘내 양을 먹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확신에 찬 베드로의 고백과 간증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 자칭하며 증인 되는 삶이 우리의 평생에 있기 원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아라(벧전 5:9)

Resist him, standing firm in the faith, because you know that your brothers throughout the world are undergoing the same kind of sufferings.(1Pet. 5:9)

베드로전서 5장

찬송가 341장

목/상/노/트

· **영려(7절)** : 다른 방향으로 끌림, 나뉘거나 산만해짐을 의미한다. 영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우리의 주의를 흠뜨리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잡아당긴다.

기도제목

① 우리에게 고난이 있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② 십자가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기도노트

믿음의
삶

새벽을 깨우세요!

AM.5:00 본당

매일 새벽기도회

“죄는 씨를 뿌리지 않아도 자라지만 거룩함은 경작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딤후 4:5). 말씀이 우리 안에 없을 때, 세상적인 것들로 우리 안은 가득 채워진다. 기도하지 않을 때 나의 삶은 내 뜻과 계획으로 가득해진다. 결국 우리는 십자가의 길에서 멀어진다.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오직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할 뿐이다. 그러므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새벽기도회! 새벽기도회에는 1년 365일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복음의 생수가 넘친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겠지만 죄를 이기는 가장 좋은 길인 새벽기도회로 하루를 시작해 보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막 1:35).

누가 주의 만찬에
나와야 하는가?

고린도전서 10:17

돼지 우리 안에서
점검하는 시간

누가복음 15:11~19

탕자의 아버지

누가복음 15:18~32

지옥에서

누가복음 16:19~31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18 주일

19 월요일

☐ 열왕기상 1장

20 화요일

☐ 열왕기상 2장

21 수요일

☐ 열왕기상 3장

22 목요일

☐ 열왕기상 4장

23 금요일

☐ 열왕기상 5장

24 토요일

☐ 열왕기상 6장

3

탕자의 아버지

The Prodigal's Father

| 초점 |

우리는 모두 탕자로서 주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 찬송 |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 본문 | 누가복음 15:18~32

¹⁸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¹⁹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²⁰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²¹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²²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²³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²⁴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²⁵만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²⁶한 종을 불러 무슨 일인가 물은대 ²⁷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전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됴므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²⁸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²⁹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³⁰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 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³¹아버지가 이르되 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³²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경건한 아버지와 그의 두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에는 오늘날 그리스도인 가정을 위한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두 아들은 모두 탕자였습니다. 동생은 죄의 향락을 선택한 탕자였고, 형은 삶의 자존심을 선택한 탕자였습니다.

※ 나는 형과 동생 중 어느 쪽에 속한 탕자인지 나누어 보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해 탕자들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즉, 동생은 겸손히 돌아왔으며, 형은 겸손히 귀 기울여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경건한 아버지를 어떻게 묘사하고 계신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가까이하기 쉬웠다

이 경건한 아버지는 가까이하기 쉬웠습니다. 둘째 아들이 “일어나 가서”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정한 이유는, 아버지가 자신을 받아줄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했습니다.

눅 15:18

※ 탕자의 가족사에 대해서 토론해 보십시오.

둘째 아들은 먼 나라에서의 멋진 삶을 꿈꾸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아버지에게 곧장 갔습니다. 이는 그가 마음속으로 아버지를 정의롭고 공평하게 생각했으며, 그래서 언제나 그에게 도와달라고 의지할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 둘째 아들이 꿈과 그 결과들을 나열해 보십시오.

탕자의 아버지는 돼지 우리에서도 가까이하기 쉬웠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는 훨씬 더 가까이하기 쉽습니다. 주님은 지치고, 약하고, 종종 고집스러운 그분의 자녀들에게 오라고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

천국과 관계가 있다

이 경건한 아버지는 천국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눅 15:18~19 /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_____
_____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_____ 하리라 하고

이 아들은 회개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을 용서할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행동은 아들로 하여금 천국에 대한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는 천국에 대해 생각할 때 그의 아버지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 탕자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는지 나누어 보십시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에서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자녀들이나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마 5:13~16 _____

자비로웠다

이 경건한 아버지는 자비로웠습니다.

눅 15:20 /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_____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아버지는 매일 밖에 나가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둘째 아들이 집으로 걸어 오는 것을 본 순간, 그는 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터무니없다고 여길 것입니다.

※ 탕자의 아버지가 불순종한 아들을 따뜻하게 맞이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의 귀향이 제일 중요할 뿐, 떠났던 시간은 아무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들에게서 나는 지독한 돼지 냄새와 모든 재산을 탕진했다는 것조차도 아버지를 아들에게서 떨어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아들이 집에 돌아온 것이었으며, 그것만이 중요한 전부였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그의 마음을 나타냈습니다.

※ 나의 마음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나누어 보십시오.

빌 2:5 _____

경건한 아버지는 두 아들 모두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두 탕자의 아버지는 두 아들 모두를 사랑했습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은 두 아들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실수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지 못합니다. 돌이켜 하늘 아버지의 집으로 오십시오. 하늘 아버지가 여러분의 가정의 가장이 되십니까? 여러분은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오늘 성경 본문의 아버지처럼 살아가고자 하십니까? 탕자인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로 가야만 합니다.

눅 15:22~23 _____

눅 15:31 _____

| 믿음의 기도 |

- ① 세상의 길에서 돌이켜 예수님이 걸으신 십자가의 길로 가게 하소서.
- ② 매 순간 회개하며, 모든 초점을 그리스도께 맞추게 하소서.
- ③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소서.



Blank lined paper for writing.



이불을 덮어도

열왕기상 1장
찬송가 488장

묵/상/노/트

기력이 쇠한 다윗에 비해서 아도니야는 왕위를 넘볼 만큼 막강한 군사력과 준수한 용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기를 높여 '내가 왕이 되리라' 고 했습니다. 아도니야는 자신들의 측근들만을 불러 왕이 될 일을 모의하였습니다(1~10절). 왕위 찬탈을 노리는 아도니야의 계락을 안 선지자 나단은 밧세바와 은밀하게 궁리하여 다윗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지혜로운 계교를 짜냅니다(11~27절). 밧세바와 나단의 보고를 언거꾸 들은 다윗은 즉시 자신의 약속대로 솔로몬을 왕위에 앉히라고 명하고 그 절차까지 알려 줍니다. 다윗은 아도니야 편에 가담하지 않은 자들을 통해 솔로몬을 왕위에 앉히는 절차를 이행하게 합니다(28~39절). 요나단을 통해 다윗이 솔로몬을 왕위에 앉혔다는 소식을 들은 아도니야와 함께 한 자들은 놀라 제각기 갈 길로 갑니다. 아도니야의 의기양양하던 잔치는 제단 뿔을 잡고 목숨을 구걸해야 하는 두려움의 잔치로 바뀌고 말았습니다(40~53절).

우리는 자기 몸 하나 스스로 추스르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초라한 말년에서 골리앗을 이긴 맹장이요,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일시킨 위대한 왕의 면모를 떠올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고, 귀하게 쓰임 받았던 다윗도 이제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합니다. 죽음이 그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막강한 권력도 아무리 많은 재물이라도 다 필요 없는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붙들 것이 없고 의지할 것도 없습니다. 모두 변하고 모두 썩어질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 계시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온전히 붙든다면 우리의 육은 썩어져 가겠지만 영은 날로 새로움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왕상 1:1)

When King David was old and well advanced in years, he could not keep warm even when they put covers over him. (1kgs. 1:1)

• 기름을 부어(34절):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을 임명할 때에는 기름을 머리 위에 부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사울은 길갈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도제목

① 썩어져 가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게 하셔서 영이 날로 새로워짐을 맛보게 하소서. ② 사순절 특별새벽 기도회에 모든 성도가 참석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기도노트

명령하여 이르되

20

어린 목동에서 왕위에 올라 40년을 다스리기까지 갖은 고난을 겪으며 왕의 영광도 누렸던 다윗도 모든 사람이 가는 죽음의 길로 떠났습니다(1~12절). 스스로 왕이 되려다가 솔로몬의 자비로 간신히 목숨을 부지했던 아도니아는 밧세바를 통해 다윗을 수종들던 여인 아비삭을 요구하였다가 반란 시도로 간주되어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13~25절).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반역에 동조한 아비아달은 파면하여 추방하고, 요압은 무고한 자들을 살해한 죄로 죽음을 당하게 합니다(26~35절). 시므이는 죽음을 면할 기회를 얻었지만, 여호와 앞에서 솔로몬과 맺은 약속을 가볍게 여겨 어김으로써 죽음을 자초하고 맙니다(36~46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십니다. 비록 다윗은 명분상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단 한번도 스스로 왕이 아니신 적이 없셨습니다. 자신의 대리자로 세운 다윗을 끝까지 책임져 주셨으며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도 그와 함께 하였고, 왕으로서 다스릴 때에도 그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죽는 날이 임박한 다윗은 이제 솔로몬에게 이러한 통치 원리를 가르칩니다. 다윗이 가르치는 통치 원리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분명 왕이지만, 참된 왕은 하나님이시며 자신은 왕의 대리자임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갈 2:20). 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왕상 2:1)

When the time drew near for David to die, he gave a charge to Solomon his son. (1kgs. 2:1)

· **스울(6절)** : 죽은 사람들이 거하는 곳을 총칭하여 구약에서는 '스울'이라 불렀다.

기도제목

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삶이 어떤 모습이든, 우리의 왕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소서. ② 모든 교구와 부서, 각 위원회가 십자가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복음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기도노트

하나님의 지혜

솔로몬은 자신이 처한 여건에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행했습니다(1~3절). 하나님은 여호와를 사랑하여 번제물 천 마리로 제사를 드린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 소원을 물으십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너무나 작은 사람이고 이에 반해 백성의 수효는 너무 많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제대로 재판하는 지혜를 달라고 간구합니다(4~9절).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까지 약속하십니다(10~14절). 한 날은 두 창기가 찾아와 솔로몬에게 재판을 요구합니다. 자기의 실수로 아이를 죽인 후 다른 사람의 아이와 바꿔버린 한 여인에게 솔로몬은 지혜를 발휘하여 아이의 어머니를 결정해 줍니다. 이는 꿈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실현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16~28절).

두 여인이 솔로몬 앞에 나아와 한 아기를 놓고 서로 자기 아기라고 고집하며 다투는 이야기는 매우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가 어떻게 빛나는가를 여실히 봅니다. 복음이 흐려져 가고 십자가가 왜곡되어져 가는 이때에 우리에게는 더욱 단호하게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복음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고전 1:18)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가 붙든 십자가가 말씀의 능력이 되고 복음이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 들은 마음(9절) :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을 이해의 장소로 생각했다. 따라서 이 말은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를 조심스럽게 들을 수 있는 마음’이란 뜻이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불이더라(왕상 3:28)

When all Israel heard the verdict the king had given, they held the king in awe, because they saw that he had wisdom from God to administer justice. (1kgs. 3:28)

기도제목

- ①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부여 주시옵소서. ② 1년 1인 1명 전도하며, 교회 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기도노트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 주셨습니다. 많은 백성이 풍요와 안정을 누렸으며, 나라의 경계도 넓어지고 부강해져 다른 나라와 평화로운 관계를 맺고 조공을 받을 정도였습니다(20~25절). 솔로몬은 실로 지혜의 왕이었으며 그의 지혜를 능가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며 각 나라에서 그의 지혜를 확인하기 위해 찾아올 정도였습니다(29~34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 같이 많은 백성을 허락하셨습니다. 솔로몬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이는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자신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시대에는 아직 그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왕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소개하는 참된 왕은 이미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육적 이스라엘을 계수하였다면,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 같이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분의 주인됨과 다스림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진실로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참된 왕의 다스림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4장

찬송가 151장

목/상/노/트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왕상 4:34)

Men of all nations came to listen to Solomon's wisdom, sent by all the kings of the world, who had heard of his wisdom. (1kgs. 4:34)

• **사관(3절)** : 기억하는 자란 뜻으로 역사를 기록하여 후세에 남기는 고위 관직을 가리킨다.

기도제목

① 매 순간마다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②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23

열왕기상 5장
찬송가 411장

목/상/노/트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를 듣고 신복을 보낸 두로 왕 히람에게 성전 건축 계획을 알리며 레바논의 백향목과 시돈의 벌목공들을 원조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1~6절). 히람은 여호와와 지혜를 찬양한 후 솔로몬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친목하여 약조를 맺습니다(7~12절).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 사람들을 동원하되 한 달은 일하고 두 달은 쉬게 하였습니다. 각자 맡은 역할들을 잘 감당하였고 감독과 관리를 각 요소에 배치하여 지혜롭게 성전 건축을 이루어 갔습니다. 이 일에 그밭의 석공과 목수와 히람의 건축자도 도움을 주었습니다(13~18절).

하나님은 솔로몬의 나라에 원수도, 재앙도 없는 태평의 시대를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진행되었습니다. 평안하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그만큼 주님을 의지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후에 솔로몬은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되고 더 이상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랜 세월 모든 것이 평안하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을 망각해 버리고 자신의 업적으로만 여겼기 때문에 생긴 결과였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주위의 많은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을 때 우리는 쉽게 교만하여집니다. 더 이상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업적과 자신의 성공에만 집중하여 주님을 떠나버릴 수 있습니다. 혹시나 지금 자신의 모습이 이와 같지는 않으십니까? 평안할 때나 힘들 때나 그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변치 말아야 할 단 하나의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전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진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영원과 연결됨을 믿어야 합니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시매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왕상 5:4)
But now the LORD my God has given me rest on every side, and there is no adversary or disaster. (1kgs. 5:4)

• 역군(13절) : 일꾼을 의미한다. 역군에는 두 부류가 있었다. 한 부류는 이방인들로서 노예와 같이 취급되었다. 또 한 부류는 이스라엘 사람들로써 강제로 동원된 사람들이었다.

기도제목

기도노트

① 예수님을 믿음으로 언제나 영원과 관계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② 예루살렘 찬양대와 오케스트라(눅 2:36)를 통하여 금요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참된 성전

24

이스라엘이 성전 건축을 시작한 것은 출애굽을 한 지 480년,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완공된 성전의 대략적인 구조와 규모를 성경은 상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1~10절). 그러나 성전은 이스라엘의 안전을 담보해 주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살 때만 이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십니다(11~13절). 성전 내부는 크게 내소와 외소, 즉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이 되었습니다(14~18절). 성전은 언약의 툇판이 담긴 언약궤를 두기 위한 곳이므로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지성소입니다(19~22절). 내소 안에는 감람나무로 만든 두 그룹이 있었는데, 그룹의 한 쪽 날개는 각각 벽에 잇닿을 만큼 펼쳐져 있었고 다른 쪽 날개는 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아 있었습니다(23~28절).

성전 건축은 출애굽을 통해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신 하나님의 구속 사건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약속의 땅에서 많은 백성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왕으로 임재하시는 상징으로 하나님의 궁전인 성전을 지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솔로몬이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참된 왕으로 여겼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성전 자체가 그들을 지켜 주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오직 말씀에 반응하는 민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통해 친히 성전이 되시고, 또한 신자를 구원하셔서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시는 것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주님을 받아들여 날마다 말씀에 반응하는 주님의 참된 성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사백팔십 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사 년 시브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왕상 6:1)

In the four hundred and eightieth year after the Israelites had come out of Egypt, in the fourth year of Solomon's reign over Israel, in the month of Ziv, the second month, he began to build the temple of the LORD. (1Kgs. 6:1)

열왕기상 6장
찬송가 600장

목/상/노/트

• 사백팔십 년(1절) : B.C. 968년을 가리킨다. 따라서 많은 학자들이 출애굽 연대를 B.C. 1468년(968+480)으로 추정한다.

기도제목

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 교회가 참된 성전이 되게 하소서. ②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의 단기선교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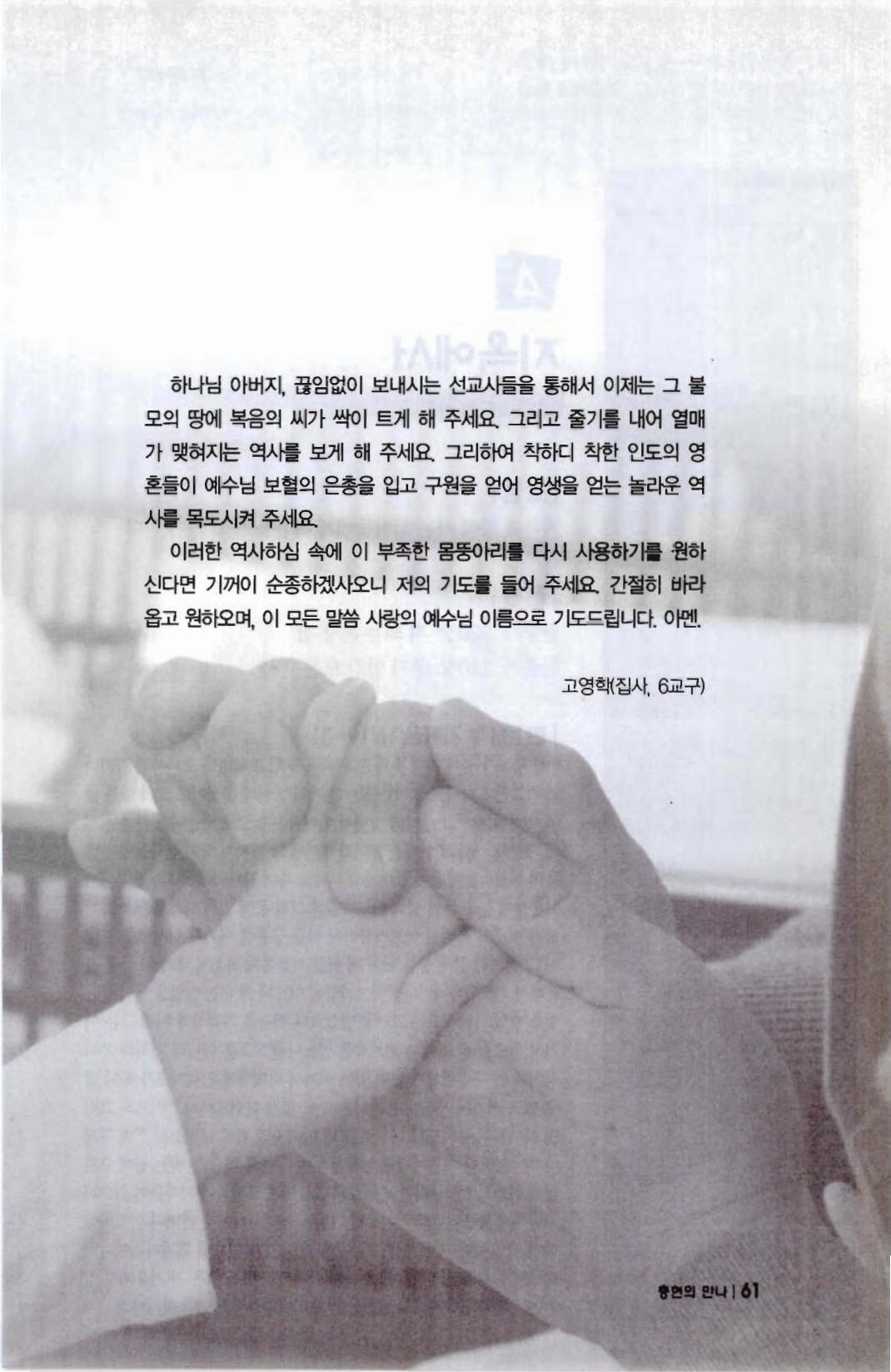


한 영혼을 위한 기도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가없는 영혼을 긍휼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주의 종인으로 세우시사, 죽어가는 인도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소명'을 주셨음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억의 인도의 인구 중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영혼이 1%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욱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인도 영혼들이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조차 알지 못한 채, 인간이 만들어낸 말도 안 되는 흉물스러운 거짓 신들에 둘러싸여 생을 마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추석, 아버지께서 명하신 '복음'을 전하는 동안 만났던, 순수한 영혼들을 기억합니다. 맑은 눈망울의 어린 아이들, 해맑은 미소의 여인들, 하얀 이가 인상 깊었던 아저씨들의 순수한 모습이 또렷이 기억납니다. 그러나 이러한 착함과 순수함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기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음을 아는 것, 지금 이 순간에도 인도의 영혼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 드리는 이유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보내시는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제는 그 불모의 땅에 복음의 씨가 싹이 트게 해 주세요. 그리고 줄기를 내어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를 보게 해 주세요. 그리하여 착하다 착한 인도의 영혼들이 예수님 보혈의 은총을 입고 구원을 얻어 영생을 얻는 놀라운 역사를 목도시켜 주세요.

이러한 역사하심 속에 이 부족한 몸뚱아리를 다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면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저의 기도를 들어 주세요.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영핵(집사, 6교구)

누가 주의 만찬에
나와야 하는가?

고린도전서 10:17

왜지 우리 안에서
점검하는 시간

누가복음 15:11~19

탕자의 아버지

누가복음 15:18~32

지옥에서

누가복음 16:19~31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25 주일

26 월요일

☐ 열왕기상 7장

27 화요일

☐ 열왕기상 8장

28 수요일

☐ 열왕기상 9장

29 목요일

☐ 열왕기상 10장

30 금요일

☐ 열왕기상 11장

31 토요일

☐ 열왕기상 12장

4

지옥에서

From Hades

| 초점 |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고 가야 한다

| 찬송 |

찬송가 239장 저 뵈는 본향 집

찬송가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 본문 | 누가복음 16:19~31

^{29a}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풀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29b}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으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30a}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30b}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31a}그가 음부에서 고통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31b}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며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32a}아브라함이 이르되 네가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32b}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33a}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33b}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34a}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34b}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며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35a}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 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오늘 성경 본문은 무시무시합니다. 그렇기에 목회자들이 설교하기를 꺼려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주제가 미치광이의 절규라든가 종교적 광신자의 우매함, 혹은 편협한 자의 상상이라면 이는 충분히 무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위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 지옥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해 보십시오.

계 20:13

오늘의 말씀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지옥과의 대조를 통한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두 사람의 서로 다른 삶, 죽음, 운명의 중요한 대조적인 부분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삶이 달랐다

그들의 대조적인 삶은 부함과 가난함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눅 16:19 /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롭게 즐기더라

부자의 삶은 평생 잔치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존경을 받았으며 행복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중요한 것들로 무엇이든지 풍성했습니다. 그는 아마 동네를 걸어 다니며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자랑하며 다니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잃은 자가 되어 이름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와는 정반대로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주신 어떤 거지가 있었습니다.

눅 16:20~21

요 10:3

예수님은 자신에게 속한 사람을 아시고, 항상 그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모든 것을 아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중심을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부자의 심령에 있었던 공허함도, 나사로가 누린 평화도 알지 못했습니다.

죽음이 달랐다

그들의 죽음은 하나님을 위한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눅 16:22

죽음의 시간은 종종 갑자기 찾아옵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아마도 사람들에게 의해 쉽게 예상되었을 것이며, 분명 거의 알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에 반해 부자는 아마도 애곡할 사람들도 고용하고, 공들인 장례식을 치렀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부고 안내는 아마도 매우 화려하고 장엄했을 것이며, 그의 업적이 전부 나열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의 때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히 9:27

세상은 다양한 대중매체를 통해서 부유하고 유명한 불신자들의 삶과 죽음을 찬양합니다. 대중은 자세한 정보를 알기 원하고, 갈구하면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을 바짝 따라가고 있습니다. 파멸로 향해 있는 넓은 세상을 더욱 잘 따르려고 합니다. 그들은 진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종말에는 진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진리를 붙잡지 않았던 모든 자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고후 5:10

영원의 삶이 달랐다

그들의 영원 속에서의 대조적인 경험은 천국과 지옥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눅 16:23~24 _____

나사로는 천사에 의해 아브라함의 옆으로 인도되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들은 그를 무시하고 그에 대해 알지 못했지만, 우리 주 예수님은 최고의 관심을 그에게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사로보다 훨씬 더 낮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의 마지막 순간에 눈을 감을 때 우리는 천국의 예수님 옆에서 첫 번째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지옥으로 내려간 부자의 영혼은 보고, 듣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 지옥에 간 부자가 요청한 것들은 무엇인지 정리해 보십시오(눅 16:25~31).

기록된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누군가 죽었다 살아난다 해도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조차도 확신하지 못할 것입니다.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이 땅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죽음이 준비되어야 비로소 이 땅을 떠날 준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해야 비로소 죽음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자신의 형제들을 향한 부자의 관심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관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부자처럼 고통 받는 그 곳으로 가기를 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잃어버린 자로 죽게 될 사람들에게 마음을 쓰고 있습니까? 나사로가 그들에게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그들에게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고 가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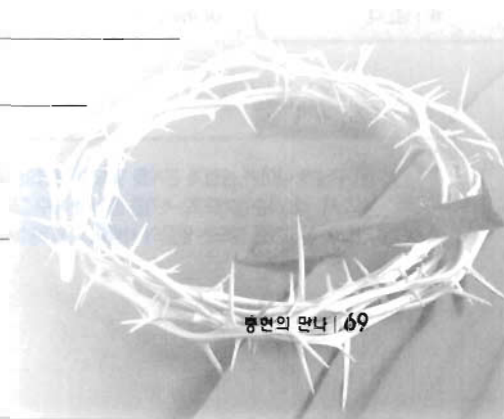
딤후 1:3 _____

딤후 4:5 _____

| 믿음의 기도 |

- 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소서.
- ② 복음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나아가 십자가를 전하게 하소서.
- ③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소서.

[illegible]



성전 기구들

열왕기상 7장
찬송가 208장

묵/상/노/트

13년에 걸친 긴 공사 끝에 웅장한 솔로몬의 궁전이 완공되었습니다. 2~8절은 궁전의 건축물들을, 9~12절은 건축 재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전 입구에 세워진 기둥부터 시작하여 성전 기물들을 소개합니다(13~39절). 늦 기술자인 히람이 만든 성전 기물들(41~47절)과 솔로몬이 지시하여 금으로 만든 성전 기물들(48~50절)을 나열합니다. 솔로몬은 부친인 다윗이 이미 만든 것들을 성전 공간에 옮김으로써 성전 봉헌 준비를 마칩니다(51절).

히람은 늦으로 수레와 물두멍을 만들어서 제사를 드릴 때 물을 실어 나르거나 동물 제물에서 나온 피를 밖으로 실어 나르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우리에게 물수레나 물두멍이 필요 없습니다. 가장 귀한 희생 제물이 되시며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길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육체를 통하여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오직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생명의 길이지만 그 길은 찾는 사람이 적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와 생명과 관계를 맺으며 생명의 길로 가고 계십니까? 여전히 육의 것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기억하며 친히 육체를 찢으신 주님을 통하여 생명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 자기의 왕궁을 삼십 년(1절)
: 솔로몬이 자신의 집을 짓는 기간은 성전을 짓는 기간보다 약 6년이 더 걸렸다. 그 크기와 규모도 약 4배가 넘는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공간에 두었다(왕상 7:51)
When all the work King Solomon had done for the temple of the LORD was finished, he brought in the things his father David had dedicated--the silver and gold and the furnishings--and he placed them in the treasuries of the LORD's temple. (1kgs. 7:51)

기도제목

① 주님께 나아가 생명과 관계를 맺으며 생명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② 사순절기(2.22-4.7)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성전을 건축하는 아들

27

이스라엘은 한 마음으로 언약궤를 성전 내 지성소에 안치합니다(1~11절). 성전을 가득 채운 구름을 본 솔로몬은 이제야 비로소 7년 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전을 주시고 그 가운데 임재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12~21절). 솔로몬은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께 다윗의 나라를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을 지켜 달라고 간구합니다(22~26절). 그리고 구체적으로 7가지 청원을 드리기 전에(31~51절) 하나님께서 꼭 하늘에서 이 기도를 들어 달라고 간구합니다(27~30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후 돌이키고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용서하고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며, 성전에서 드리는 이방인의 기도도 들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33~53절).

하나님은 성전 건축할 자를 향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삼하 7:14)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솔로몬에게서 성취되었지만, 솔로몬과 그의 뒤를 이은 왕들의 죄악으로 결국 성전은 허물어지고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했지만 선지자들이 예언한 영광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고 임재하시는 ‘나랏’, 즉 구속 받은 성도들입니다. 오늘 나를 성전으로 삼으셔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하신 약속을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네 몸에서 낳을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왕상 8:19)

Nevertheless, you are not the one to build the temple, but your son, who is your own flesh and blood--he is the one who will build the temple for my Name. (1Kgs. 8:19)

열왕기상 8장

찬송가 150장

묵/상/노/트

• **감부기(37절)** : 공평의 일종으로서, 습기가 많을 때 곡식에 발생하는 병이다.

기도제목

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참된 성전을 건축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하소서. ② **충현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솔로몬이 20년에 걸쳐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꿈에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주의 이름을 영영히 성전에 두고, 다윗의 왕위를 끊어지지 않고 견고하게 하실 조건으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1~5절). 그러나 만약 다른 신을 숭배할 때는 이스라엘을 끊어버리고 이 성전까지도 던져 버리겠다고 하십니다(6~9절). 솔로몬은 일 년에 3번씩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제사의 삶을 살았습니다(20~28절).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난 때는 성전 건축과 왕궁 건립으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그의 열심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우상을 숭배하지 말 것을 경고하셨습니다(6~9절). 그때의 솔로몬은 아마도 하나님이 뜬금 없는 소리를 하신다고 생각했을 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멋진 성전을 지어서 올려 드리는 열심을 보시면서도 그런 소리를 하시느냐고 항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맞고, 솔로몬은 틀렸습니다. 솔로몬은 점차 교만하여져 갑니다. 그는 영토가 확장될수록, 건물이 올라갈수록, 백성들과 이방인들의 칭송을 들을수록 조금씩 하나님을 떠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년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우상 숭배하는 타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혜의 왕이었으나 그는 참된 왕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성경은 우리의 참된 지혜의 왕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 가불 땅(13절) : ‘쓸모없이 버려진 땅’이란 뜻이다. 이 땅이 황폐한 땅은 아니었다. 그러나 비옥한 해변가에 살던 히람 왕의 눈에는 황폐하게 보였을 것이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왕상 9:6)

But if you or your sons turn away from me and do not observe the commands and decrees I have given you and go off to serve other gods and worship them. (1kgs. 9:6)

기도제목

① 성경 말씀이 증거하는 참되신 예수만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② 김성관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오직 복음만 전하는 정결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소서.

기도노트

참된 지혜

목요일

29

솔로몬의 지혜에 관한 소문을 듣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스바 왕국의 여왕이 방문하였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온 스바 여왕의 시험에 잘 응대함으로써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증명합니다(1~3절).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와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전과 궁과 신하들을 보고는 소문보다 더한 지혜와 복에 놀랍니다(4~7절). 솔로몬의 지혜를 확인한 여왕은 그에게 많은 부를 안겨줍니다(8~13절). 또한 솔로몬은 탁월한 해상 무역 수완을 발휘하여 막대한 수익을 얻었으며(14~15절), 그 재산과 지혜의 소식을 들은 이웃 나라들에게도 큰 위협이 될 정도였습니다(23~25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10절)는 말씀처럼 이 시기는 솔로몬 치세의 절정기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안한 정상입니다. 백성을 돕기 위해 구했던 지혜로 자기 왕궁을 꾸미고 이방 여왕을 통해 자신의 지혜를 드러내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바 여왕은 마치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지혜를 보시고 그를 기뻐하여 왕으로 삼으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타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현명하고 최고의 학식을 자랑한다 하여도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한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곧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혜의 근본되신 여호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지혜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열왕기상 10장

찬송가 505장

목/창/노/트

• 다시스 배(20~22절) : 솔로몬은 자기 배에 '다시스 배'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 이유는 다시스에 있는 제련소의 물품을 주로 운반했기 때문이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시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므로 당신을 세위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왕상 10:9) Praise be to the LORD your God, who has delighted in you and placed you on the throne of Israel. Because of the LORD's eternal love for Israel, he has made you king, to maintain justice and righteousness. (1Kgs. 10:9)

기도제목

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총현교회에 주신 5대 목표가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기도노트

여호와의 준비

열왕기상 11장

찬송가 518장

목/창/노/트

이방인과의 결혼은 그들의 신을 받아들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에게조차 금지되었던 명령이었음에도 솔로몬은 1,000명이나 되는 이방인 아내들과 그들의 신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방 여인들의 신들을 용인해 주어 그도 결국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1~8절). 하나님은 이미 두 번씩이나 그에게 나타나 다른 신을 좇지 말라고 경고하셨지만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결국 하나님은 나라를 쪼개어 놓겠다고 선언하십니다(9~13절). 이러한 솔로몬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은 하닷과 르손을 준비시키십니다(14~25절). 또한 솔로몬의 충신이었던 여로보암을 들어 사용하십니다(26~28절). 결국 열지파는 여로보암에게 가고 두 지파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윗 때문에 내려진 은총이었습니다(29~36절).

하나님은 솔로몬을 대적할 에돔 사람 하닷을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바로의 궁에서 준비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솔로몬을 징계하기 위해 하닷을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에게 구원과 심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종려주일을 향해 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발걸음 속에 함께 있기 원합니다.

• 솔로몬의 실록(41절) : 솔로몬의 일생을 기록한 전지인 것 같다. 오늘날까지 전해지지는 않지만, 열왕기를 기록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었다. 이 책은 선지자들에 의해 기록되었는데 하(9:29).

그 때에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왕상 11:17)

But Hadad, still only a boy, fled to Egypt with some Edomite officials who had served his father.(1kgs. 11:17)

기도제목

①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을 베푸신 주님께 감사하게 하소서. ② 예루살렘 찬양대와 오케스트라(눅 2:36)를 통하여 금요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기도노트

잘못된 열심

31

솔로몬이 죽은 후 왕권을 이어받은 르호보암에게 백성들이 찾아와서 자신들의 고역과 멍에를 가볍게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솔로몬을 섬겼던 늙은 신하들은 르호보암에게 백성들의 종이 되어 그들을 섬기라고 권합니다. 그러나 르호보암과 함께 자란 젊은이들은 왕에게 백성들을 더 무거운 멍에와 벌로 다스리라고 권면합니다(1~11절). 르호보암은 젊은 사람들의 충고를 따라 힘으로 백성들을 통치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열 지파가 르호보암을 떠나 다른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12~24절). 여로보암은 자기를 좇던 이스라엘이 다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 것을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러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단과 벰엘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절기까지도 마음대로 바꾸었습니다(25~33절).

여로보암은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그는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려 했습니다. 또한 그는 백성들의 믿음을 이용하여 정치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에게는 열심이 있었으나 그것은 그의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이런 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 열심으로, 내 방식대로 주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고 내 지식과 이해의 한계 내에서 하나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해한 것이 아닌,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와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다 하고(왕상 12:27)

If these people go up to offer sacrifices at the temple of the LORD in Jerusalem, they will again give their allegiance to their lord, Rehoboam king of Judah. They will kill me and return to King Rehoboam. (1kgs. 12:27)

열왕기상 12장

찬송가 82장

목/창/노/트

·하나님의 사람 스마애(22절): '하나님의 사람'은 구약에서는 선지자, 신약에서는 성도를 가리킨다. 스마아 선지자는 르호보암 왕의 사기를 저술하였다(대하 12:15).

기도제목

① 종려주일을 맞으며 오직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소서. ② 십자가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기도노트



Handwriting practice lines consisting of 18 horizontal rows. Each row is defined by two solid horizontal lines with a dashed midline, providing a guide for letter height and placement.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중현의 만나 2012년 3월

Copyright© 2012 Choonghyun Church

발행인 | 김성관

편집인 | 진홍용

집필진 | 박만복 양재웅

발행처 | 중현교회 출판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비매품]